뉴스 NEWSGATE 게이트

Since 1996

[플러스친구] 뉴스게이트 & 필살기
필살기 - 뉴스게이트 필리핀 온라인 매거진

오늘 당신에게 좋은 뉴스가 생깁니다!

2026년 MAR 28
3월 Vol.3 / 1320호





총회·협약·네트워킹… 함께 움직이는 한인사회





Korea Philippines Lucky 럭키해운항공 Lucky Logistics Corporation

(주)럭키해운항공

Lucky Phil Kor Logistics Corp.

Lot 1 Blk 18 Ezra corner Job St. Bf
Martinville Las Pinas City

■ 대표전화 : 사무실 02-8853-2424 02-8853-7338
0917-853-7338 070-8801-7338
■ 특송 총괄 : 박정일 0927-895-4371 0920-978-7338
■ 배송사업부 : 손해진 0917-852-7338 magandangel1004
0977-829-7338 luckyorandbut
▶ 해운경리부: 한지혜 0917-871-7338 lucky7338
▶ 항공사업부: 최현식 0908-873-7338 Lucky_logicS
▶ 이삿짐사업부: 최현식 0917-842-7338 Lucky_logicA

■ 앙겔레스지사 : 소장 양은호 0908-646-1000 moriss7
■ 퀘존지사 : 소장 김동주 0926-615-5751 quezonelucky
■ 바기오지사 : 소장 추정호 0927-899-6890 chujungho786
■ 일로일로지사 : 소장 황재룡 0961-119-5555 hjr70
소장 송재인 0961-089-3333 sjaiin7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394 - 1 럭키해운
◆ 대표전화 : 031-904-2488 / 070-8811-2488
◆ 장용원 지사장 010-3658-5966 jyw6818
◆ 장준환 팀 장 010-5547-2488 lucky55472488
◆ 이지택 차 장 010-2371-2488 lucky32488
◆ 서해수 과 장 010-3149-2488 lucky3149
◆ 전혜린 대 리 010-3560-2488 luckyban7

통관 운송 배달 서비스

★ 책임제 통관 서비스
★ 프로젝트 물류 / 기업물류 / 모든 상업물류
★ 전자, 전기, 건축, 기계, 가구 등
★ 대형 중기, 버스, 트럭 LTO 등록
★ 중고 물류 (의류, 신발, 잡화, 가구)
★ 가정생활용품 택배서비스

www.lucky2488.com (배송추적) 대표전화: 02-8853-2424 / 02-8853-7338



필리핀 한인여성연합회 제33기 출범…도약(JUMP)으로 공동체 재건 나선다

뉴스도 쇼츠! NEWS GATE

필리핀 한인여성연합회가 3월 26일 정기모임을 열고 제33기 출범과 함께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단체는 명칭을 '필리핀 한국여성연합회'에서 '필리핀 한인여성연합회'로 바꾸는 방안을 안내하고, 연말 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올해는 봉사와 연대, 현지 사회와의 연결을 핵심 가치로 삼아 다양한 나눔 행사와 대외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행사에서는 새 임원진 소개와 재무 보고, 사업 계획 발표가 이뤄졌고 방송인 그레이스 리의 강연도 이어졌다.이번 모임은 팬데믹 이후 약화된 한인 여성 네트워크를 복원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명칭 변경 추진·그레이스 리 강연…한인 여성 네트워크 재활성화 신호탄

필리핀 한인여성연합회(회장 장은영)가 3월 26일 파사이 골든피닉스호텔에서 2026년 정기모임을 열고 제33기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재도약에 나섰다. '도약(JUMP)'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팬데믹 이후 위축된 한인 여성 공동체를 재정비하고 조직의 방향성을 재확립하는 계기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단체 명칭을 기존 '필리핀 한국여성연합회'에서 '필리핀 한인여성연합회'로 변경하는 방안이 공식 안내됐다. 해당 안건은 이사회에서 사전 논의를 거쳐 우선 적용되며, 연말 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화란 이사장은 개회 선언을 통해 조직 안정화와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명칭 아래 활동 기반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장은영 회장은 환영사에서 "1978년 창립 이후 이어져 온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며 위축된 동포 사회 속에서 한인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필리핀 사회 속에서 한국 여성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원진과 함께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의 상승만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의 어려운 시기 역시 성장의 과정"이라며 여성연합회의 재출범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향후 한인사회 내에서 따뜻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심재신 이사장도 격려사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을 강조하며, 조직 재정비를 계기로 더욱 활발한 활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제33기 임원진도 공식 소개됐다. 장은영 회장을 중심으로 부회장 정세정, 총무 구수현, 재무 김규진이 집행부를 구성했다. 교육위원장은 주선화, 대외협력위원장은 이지넷, 봉사위원장은 강선주, 홍보위원장은 박일석이 맡았으며, 소셜미디어 부문은 신유림이 담당한다. 조직 전반에 걸쳐 실무 중심의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무 보고에서는 약 82만 페소 규모의 재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활동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발표된 2026년 사업 계획에는 대한노인회와의 나눔 행사, 참전용사 기념 활동, 어버이날 행사, 지역사회 봉사활동, 국제 바자회 참여, 김치 나눔 행사 등이 포함됐다. 특히 미혼모, 다문화 가정, 소아 환자 지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필리핀대학교 한글연구센터와의 협력 사업과 대사관 연계 체육 교류 행사 등 외부 기관과의 협업도 추진된다.

2부 행사에서는 문화 공연과 초청 강연이 이어지며 행사의 의미를 확장했다. 비올라 연주자 반선영과 피아니스트 주선화의 합동공연으로 '섬집아이'와 'Dmitri Shostakovich의 Jazz Suite No.2 VI Waltz II'가 연주되어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방송인 그레이스 리(이경희)의 강연이 진행됐다. 필리핀과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레이스 리는 필리핀에서의 삶을 통해 얻은 핵심 경쟁력으로 '적응력'을 꼽으며, 그 중심에는 영어가 아닌 현지 언어인 따갈로그의 중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지 언어를 통해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녀는 필리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중국계 커뮤니티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교민 사회 역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는 공감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여성들이 이미 글로벌 감각과





다문화적 시각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레이스 리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며, 과거와 달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현재의 흐름 속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느끼는 자긍심은 더욱 크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행사 후반에는 필리핀 대한노인회 고문 김춘배의 하모니카 공연과 만찬, 경품 추첨 등이 이어지며 참석자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건배사와 함께 회원 간 결속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번 정기모임은 단순한 친목 행사를 넘어, 팬데믹 이후 약화된 필리핀 한인 여성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공동체 기반을 재정립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봉사와 연대, 그리고 현지 사회와의 연결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향후 필리핀 한인사회에서 여성연합회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됐다. [재필리핀한인언론인협회]

라우터로 간편하게

COREON MOBILE
WWW.COREONMOBILE.COM
iT.Corea
www.corea.ph

코리온 LTE 무제한 인터넷
월 2,800 페소



LTE 라우터란?

LTE 무선모뎀을 활용하여
유선 인터넷을
대체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활용분야


01 인터넷망 없이도 설치가능 단말기


02 CCTV와 스마트폰 실시간 확인


03 전화기와 POS는 유선 PC는 WIFI 사용


04 비용절감 빠른설치 효율적 운영


05 중소사무실 내선간 통화 PC동시사용


06 인터넷망이 없는 지역 인터넷 사용

제품 특징 & 장점

- 유선 네트워크 제공이 불가하여 대체재를 원하는 고객님(설치 및 공간이동 편함)
- 유/무선 동시에 지원하여 유선망 구축비용이 절감되어 더 저렴하게 이용가능
- POS단말, BGM, 소량 데이터 활용을 원하시는 고객님께 추천
- 2포트로 070/전화기/카드체크기/PC 중 2개를 동시에 사용 가능
- 사무/업무용도의 인터넷 회선 제공을 원하시는 고객님께 추천(선이 필요하지 않음)
- 인터넷망이 없는 지역이라도 사용이 가능하여 건설현장 등에서 인터넷 사용 가능
- KT, SK, LG+를 통해 인증된 기술과 안정성

각지역 대리점 모집

소자본 창업/부업, 추가수입 가능! 바로 시작 가능!

한국 담당자 : (S)0998-596-4860 / (G)0917-801-6966 카톡아이디 : oranse

iT.Corea 에서 제공하는 Coreon Mobile 은 필리핀 NTC로 부터 주파수 대역을 받아서 운영하는 Telecom 회사 입니다.

PLDT Smart
iT.Corea & 코리온 모바일 (공식 PLDT & SMART 파트너)
PLDT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www.pldt.com/privacy-policy)

필리핀 한인상공회의소 제31차 정기총회 개최…"위기 속 기회, 협력으로 돌파"

엄현종 회장 3연임 확정…한·필 경제협력 확대와 공동체 역할 강조









필리핀 한인상공회의소(KCCP)가 3월 23일 마카티 스포츠클럽 아얄라 연회장에서 제3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필 경제 협력과 한인 경제인의 역할을 다시 짚었다.

'과거를 기리고 미래로 나아가다' 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회원과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해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는 양국 국가 제창으로 시작됐으며 전상구 부회장의 사회로 본격적인 일정이 진행됐다. 전상구 부회장은 "31번째 총회는 단순한 연례 행사를 넘어 새로운 10년을 여는 전환점" 이라며 글로벌 갈등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한인상공회의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엄현종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세계 정세의 불안정성과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환경을 언급하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와 글로벌 혼란을 겪으며 축적한 경험이 앞으로의 성장 기반이 될 것" 이라며 회원들의 단합과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번 총회의 핵심 메시지인 '위기 속 협력' 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는 축사를 통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필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무역과 투자 확대,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실질적인 경제 협력 성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중동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글로벌 리스크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필리핀 상공회의소·산업연합회(PCCI) 페르디난드 페레르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 경제단체 간 협력이 양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경제학자 베르나르도 비예가스는 필리핀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며 제조업과 인프라,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시너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총회에서는 2026~2027년 이사회 구성도 공식 발표됐다. 장재중 명예회장의 주도로 진행된 승인 절차를 통해 엄현종 회장의 제18대 회장 연임이 확정됐으며 부회장단과 이사진 명단도 함께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박수로 이를 승인하며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이어 이관수 명예회장과 필리핀 상공회의소 명예회장 에누니나 망히오가 공동으로 축하 건배를 제안하며 행사 분위기를 이어갔고, 만찬과 문화공연이 진행되며 회원 간 교류의 시간도 마련됐다.

필리핀 한인상공회의소는 1995년 한덕우 초대 회장을 중심으로 출범한 이후 필리핀 내 한인 투자기업의 권익 보호와 이익 대변을 위해 활동해 왔다. 현재는 외국 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통상위원회, 장학위원회, 주니어 챔버 등 다양한 조직을 중심으로 현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이번 총회에서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한인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재필리핀한인언론인협회]



바다가 잔잔한
3월~5월, 마따붕까이
골드피쉬 리조트에서
『포춘 아일랜드 호핑 투어』를 즐겨보세요!

포춘 아일랜드 호핑

즐길거리

- 30명 탑승 가능한 **신규 제작 대형 보트**로 안전하게
- **거북이가 산란**하는 아름다운 무인도
- 한국 드라마 「도망자」 속 **가수 '비'가 뛰어내린 절벽**
-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천혜의 섬과 하얀 모래사장**
- **아름다운 산호초와 열대어** 감상
- 섬 뒤편 **절벽 점프**와 배 위에서 즐기는 **줄낚시**까지!



1인 3,500페소
(6인 기본)

포함 내용 : 왕복 배, 섬 입장료, 섬 간식, 해변 원두막, 바다낚시, 스노클링, 마따붕까이 발사, 바나나보트, 해물 바베큐 점심, 호텔 수영장 및 샤워시설 이용가능

문의
글로브 0917-535-5690
스마트 0918-991-4414
카톡ID goldfish5690

http://cafe.naver.com/matabungkaygoldfish

마따붕까이 비치호텔과 함께하는 Gold Fish 골드피쉬

호핑투어 & 다이빙 & 호텔 할인예약

마따붕까이 **최대&최고** 시설의 호텔
마따붕까이 **해변 1/3 크기**의 프라이빗 비치
뗏목 대나무집(발사) 유일의 **산호초 지역**
넓은 해변과 탁 트인시야로 쾌적한 환경
웰컴 드링크 서비스
해변가 **휴식&편의시설**, 수영장, 유아풀,
테니스장 등 많은 **부대시설 무료** 이용
아름다운 **석양 & 노을**
400여명 수용 가능한 **다양한 숙박룸**
200여명 이상 행사 가능한 **펑션룸**
간호사 , 인명구조 항시 상주







골드피쉬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 드리는 **호텔 할인**혜택!

호텔 예약! 기존 로컬 가격의 30% 특별할인!

2025년 10월 기준

※조식불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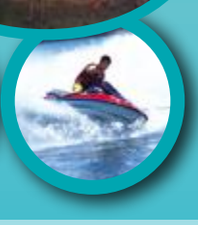
디럭스룸(2인실) : P 7,150▶**P 5,005** / 패밀리룸(4인실) : P 11,180▶**P 7,826**
슈피리어 패밀리룸(6인실) : P 13,780▶**P 9,646** / 발카다룸(8인실) : P13,000▶**P 9,100**
썬셋스트디오 2인 P 8,280▶**P 5,796** / 썬셋스트디오 3인 P 9,750▶**P 6,825**
비치빌라(6인실) : (A)P15,600▶**P 10,920** / (B)P16,900▶**P 11,830** / (C)P18,200▶**P 12,740**
비치하우스(2~4인실): P 19,500▶**P 13,650** / 워터빌라(4인실): P 23,400▶**P 16,380**

골드피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은 **호텔 수영장**과 **샤워실**을 **무료**로 이용가능







즐거운 하루 패키지

4인이상

※ 추가 가능 서비스: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디스코보트, 닌자거북이보트, 드래곤보트 등

발사 P1,200 패키지	유일한 산호초 지역 뗏목 대나무집(발사) + 스너클링(장비포함) + 피쉬피딩 + 카약 + 해물바베큐
호핑 P1,800 패키지	발사 P1,200패키지 + 바나나보트 + 호핑투어 + 보트 낚시 + 해물바베큐
씨푸드 호핑 P2,500 패키지	발사 P1,200패키지 + 바나나보트 + 호핑투어 + 보트 낚시 + 해물바베큐 + 해물찜
체험다이빙 P3,500 패키지	호핑 P1,800패키지 + 체험다이빙 ※ 교육다이빙과 펀다이빙은 별도문의!

예약 문의 : (글로브) 0917-535-5690 / (스마트) 0918-991-4414
카 톡 I D : goldfish5690 리셀(현지인) : 0927-211-0943
Matabungkay Beach Hotel, Baranggay Matabungkay, Lian, batangas

한·필 경제단체 손잡았다…아시아한상 필리핀 총연합회·PCCI 마카티 협약

회원사 교류 넓히고 무역·투자·공동사업 협력 본격화





필리핀상공회의소 마카티(PCCI Makati)와 아시아한상 필리핀 총연합회가 3월 27일 따귁에 있는 필리핀상공회의소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국과 필리핀 기업 간 협력 확대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회원 기업 간 교류를 넓히고 무역과 투자 촉진, 정보 공유, 공동 프로그램 운영, 한국 기업의 필리핀 진출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필리핀 현지 경제단체와 한인 경제단체가 공식 협력 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연결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상공회의소 마카티 누나투스 투츠 코르테즈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협약이 단순한 형식적 합의가 아니라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누나투스 투츠 코르테즈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산업, 기술, 제조, 서비스, 지역사회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필리핀 경제에 꾸준히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기업 성장의 기회를 넓히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더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한상 필리핀 총연합회 송훈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협약이 두 기관이 함께 성장하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훈석 회장은 이번 협약이 단순히 문서를 주고받는 차원을 넘어 회원 기업들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만들고 더 넓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필리핀상공회의소 마카티 루비 빅토리노 회장이 단체의 역사와 역할,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루비 빅토리노 회장은 필리핀상공회의소가 필리핀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 정부와 산업계, 지역 상공회의소,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사를 위한 교육, 네트워킹, 비즈니스 매칭, 통상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시아한상 필리핀 총연합회 소개는 김수용 부회장이 맡았다. 김수용 부회장은 필리핀 내 한인 기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술과 상품, 필리핀 시장과 인력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필리핀을 거점으로 삼아 아시아 시장과의 연계를 넓히고, 단순한 친목성 네트워크를 넘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사업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방향도 함께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체결 목적은 아시아한상 필리핀 총연합회 김형수 부회장이 설명했다. 김형수 부회장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한국과 필리핀 기업 간 경제 협력과 비즈니스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회원사 간 네트워크 확대와 정보 공유는 물론 무역·투자 촉진, 공동 프로그램 운영, 한국 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출 지원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삼고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후 진행된 협약식에서는 양측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하고 주요 관계자들이 입회하면서 공식 협력 관계가 성립됐다. 이어 기념품 교환과 단체 사진 촬영이 진행되며 협약 체결의 의미를 함께 기념했다.

폐회사에서는 아시아한상 필리핀 총연합회 이하린 부회장과 필리핀상공회의소 마카티 아르넬 라카디오 부회장이 각각 발언에 나서 앞으로의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기적인 교류와 공동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회원 기업 간 협력이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식 일정이 끝난 뒤에는 만찬과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며 양 기관 회원사 간 실질적인 연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필리핀 현지 경제단체와 한인 경제단체가 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앞으로 회원 기업 간 교류 확대를 바탕으로 무역과 투자, 공동행사, 시장 진출 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게이트]









GRAND OPENING

"실랑 NEW 랜드마크"

창고형 대형 한국마트 쏭마트가 오픈하였습니다.



SSONG MART

San Vicente 2 Emilio Aguinaldo Hwy,
Silang, Cavite (실랑 메디컬센터 옆)

필리핀 내무부(DILG) 장관, 한인사회 안전 강화 논의

뉴스도 쇼츠! NEWS GATE

필리핀 내무부 장관과 주필리핀 한국대사가 3월 26일 마카티에서 회동해 에너지 위기와 한인 교민 안전 문제를 논의했다.

한인 사회는 가로등 확충, 오토바이 검문 강화, 범죄 예방 홍보 확대 등을 요청했다.

또 코리안데스크 핫라인의 실효성 개선을 위해 AI 통번역 시스템 도입이 제안됐다.

필리핀 정부는 기술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사관 직통 연결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로등 확충·오토바이 검문 강화·코리안데스크 개선 · AI 통번역 도입

필리핀 내무부(DILG) 후아니토 빅토르 카티바얀 레물라 장관과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이상화 대사는 3월 26일 마카티 페닌슐라 호텔 내 올드 마닐라 레스토랑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에너지 위기 대응과 한인 교민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동에는 내무부 네스토 킨타나 차관과 릴리안 드레온 차관보, 필리핀 경찰청(PNP) 아놀드 키볼랑 청장, 마카티 관할 디스트릭트 5 아놀드 토마스 이바이 경찰서장(마코타관할),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박종민 영사, 권민혁 영사,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이하린 부회장과 김형수 부회장, 마닐라코리아타운협회 유경화 부회장, 윤장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화 대사와 레물라 장관는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으로 시작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양측은 각국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가운데, 필리핀 정부가 고려 중인 대응 조치도 언급됐다. 레물라 장관은 특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통금 조치 등 제한 정책이 검토되고 있으며, 지방선거 예산 약 2억 달러 규모를 에너지 대응에 우선 활용하기 위해 선거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인 사회를 대표해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김형수 부회장이 교민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다. 그는 우선 내무부가 코리안데스크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인 사회 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에 감사를 표하고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가로등 밝기 개선과 추가 설치를 요청했다.

어두운 환경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만큼 물리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2인 탑승 오토바이를 활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검문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공영 매체를 통한 범죄 예방 공익광고 확대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치안 인식을 높일 경우 관광객 증가와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닐라코리아타운협회 유경화 부회장은 코리안데스크 핫라인의 실효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사건 발생 시 언어 장벽으로 인해 신고 내용 전달이 지연되어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인공지능 기반 자동 통번역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다.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경우 대응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레물라 장관은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면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하며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울 경우 코리안데스크 핫라인을 대사관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동은 에너지 위기라는 국가적 현안과 함께 교민 안전 문제를 동시에 다룬 자리로, 필리핀 정부와 한인 사회 간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치안 환경 개선과 소통 체계 강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향후 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필리핀한인언론인협회]







토피아종합학원
TOPIA
GLOBAL ACADEMY



마카티 살세도빌리지
아귀레 빌딩 2층 (1층 CTBC BANK)
Aguirre Building, 108 H.V Dela Costa cor. Tordesillas st, Makati

문의 T. 02-8633-5901 ■ M. 0917-843-1852 ■ E. topiabgc@gmail.com ■ 카톡: topiaedu







공부와 예체능
인성과 자신감을 함께 키우는 공간

● 토피아종합어학원 (TOPIA English Learning Center)
1:1 또는 그룹 수업
Speaking / Listening / Reading / Grammar / Writing
단기연수, 영어캠프, 입학준비, 방과후 수업, 비즈니스 영어 및 아카데믹 영어

● 뮤직학원 (TOPIA Music Center)
피아노 & 기타 / 전공 강사진 수업/ 청소년, 성인 클래스
기초부터 심화단계까지 단계별 지도

● 스포츠학원 (TOPIA Sports Center)
태권도, 줄넘기, 검도 / 바른 자세, 체력강화, 자신감 향상
주 2~3회 선택 수업 가능

Topia



아~~ 뭐가 먹고 싶은데 딱히 생각나는게 없으시죠?

그래서 고민해서 준비했습니다.



갈비삼겹

육 즙 팡 팡! NEW MENU

갈비 양념에 재운 삼겹살을 노릇하게 구워낸 **신메뉴!**
달콤짭짤한 양념과 풍부한 육즙이 입안 가득 퍼지며,
부드러운 고기 결이 한층 더 깊은 맛!
그냥~~~ 입에 짝짝 붙습니다. **찾으시던 그맛!**

프리미엄 브랜드 지점에서만 맛보실수 있습니다!
마카티, 제티 파사이, 말라떼

부대찌개



아!! 이맛이야. NEW
할때 그맛입니다. MENU

매콤하면서도 **깊은 국물 맛**이 일품이며,
다양한 재료의 풍미가 한 숟가락마다
살아나 혀를 놀라게 합니다!

(모든 지점에서 이용 가능: 제티 파사이, 말라떼
마카티, 앙할레스, 아코비아, 더블드래곤)


역시
ZHUBAJIE ORIGINAL
ZHUBAJIE PREMIUM
★감자탕★
맛있다!
쭈빠찌에
★크림찜닭 파스타★
★옛날도시락★
★꼬막소면 초무침★
★차슈덮밥★
★비빔냉면★
★삼겹묵은지찜★
★랭쌥★
★불난무뼈직화닭발★
★생삽겹한판★
★염소탕★
제티 파사이점
Jetti Bussines Center
Pres. Diosdado Macapagal Ave
쭈빠찌에 PREMIUM
일~목 : 11am~3am / 금~토 : 11am~6am
0935-802-7229
말라떼점
1799 M. Adriatico St.
Malate Manila
쭈빠찌에 PREMIUM
월~목 : 11am~3am / 금~일 : 24시간
0917-539-1981
마카티점
5835 Don Pedro,
Poblacion, Makati
쭈빠찌에 PREMIUM
일~목 : 11am~3am / 금~토 : 11am~6am
0917-508-2021
앙헬레스점
Blk 15 Lot 32-34 Friendship Hiway
Pampanga, Angeles City
쭈빠찌에 PREMIUM
월~일 : 11am~5am
0966-628-7770
아코비아 파식점
Unit A3, GF - the View Deck
Arcovia City, Pasig City
쭈빠찌에 ORIGINAL
일~목 : 10am~2am / 금~토 : 10am~5am
0956-641-9101
더블드래곤 파사이점
Double Dragon Plaza Ground Floor,
Meridian Park Corner Macapagal Ave.
쭈빠찌에 ORIGINAL
월~일 : 11am~10pm
0917-160-1856

(주)럭키해운항공
Lucky Phil, Kor Logistics Corp.



항공운송 서비스
럭키만의 노하우로 항공통관 <프로젝트물류 / 기업물류>

오랜 필리핀 항공통관 경력으로 확실한 세관/통관 서비스 제공

안전배송 서비스
고객의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럭키를 통해 배송되는 모든 제품은 검수를 거쳐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객님께 배송됩니다.

Door To Door / 빠른배송 / 확실하고 안전한 배송

필리핀본사 :
주 소 : Lot 8(Unit B), Blk 3, A. Canaynay Ave., BF Martinville, Brgy manuyo dos, Las pinas.
담장자 : 최현식 0908 873 7338 / 0917 842 7338 / 카톡ID: Lucky_logicA

한국집하장 : UNI GLOBAL HYM EXPRESS UNI 럭키항공
주 소 : 서울 강서구 공항동 22-134 1층 (지번주소: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7나길15)
담장자 : 010-2028-3539/ 010-7629-2929

필리핀대표전화: 02-8853-7338 / 0917-853-7338 / 070-8860-7338

‘마약왕’ 박왕열 복역 사블라얀 교도소…관광지로 홍보 논란

뉴스도 쇼츠! NEWS GATE

필리핀 사블라얀 교도소가 관광지로 소개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은 ‘마약왕’ 박왕열이 복역하며 국내 마약 범죄를 지휘한 곳으로 지목됐다.

필리핀 관광부와 여행 가이드는 숙박·체험 프로그램까지 홍보하고 있다.

정부는 교도소 관리 부실이 범죄 지속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수감 중 마약 지휘 의혹 속 “게스트하우스 숙박 가능” 관광 소개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뒤 복역 중이던 ‘마약왕’ 박왕열이 국내로 송환되면서, 그가 수감돼 있던 사블라얀 교도소의 실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교도소가 관광지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는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박왕열을 임시 인도받았다. 그는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현지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정부가 장기 복역 중인 그를 송환한 배경에는 교도소 내에서도 마약 범죄를 계속 지휘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법무부는 수감 상태에서도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송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왕열은 텔레그램에서 ‘전세계’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며, 일부에서는 외부 인물을 불러 함께 지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법무부는 필리핀 교정시설의 관리 감독 체계가 취약해 이러한 범행이 가능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복역하던 사블라얀 교도소는 필리핀 민도로섬에 위치한 대규모 수감 시설이다. 정식 명칭은 ‘사블라얀 교도소 형벌 농장’으로, 1954년 설립됐다. 면적은 약 161.9㎢로 서울시의 4분의 1 수준에 달한다.

이 시설은 일반 교도소와 달리 농업과 직업 훈련을 통해 수감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구조로 운영된다. 모범수나 출소가 임박한 수감자는 작은 주택 형태의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갖추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이한 점은 외부 관광객의 출입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필리핀 관광부는 이곳을 유명 관광지로 소개하며, 넓은 부지에서 낚시와 보트 체험, 생태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감자들이 만든 공예품을 판매하고 방문객을 맞이하는 활동도 이뤄진다.

여행 가이드북 론리플래닛 역시 이 교도소를 독특한 체험 공간으로 소개하며, 수감자와 직접 교류하거나 숲 속 트레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심지어 교도소 내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수감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밤을 보내는 체험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교정시설이 관광지로 활용되는 구조 속에서, 관리 감독의 허점이 범죄 지속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국제 공조를 통해 관련 범죄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필리핀 항공업계 ‘비상’…제트유 부족에 운항 중단 우려

뉴스도 쇼츠! NEWS GATE

중동 분쟁 확산으로 제트유 부족 우려가 커지며 필리핀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항공기 운항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세부항공 등 일부 항공사는 운항 횟수 축소에 나섰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연료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에너지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중동 분쟁 여파로 연료 공급 차질…항공사 감편·정부는 “단기 문제 없다”

중동 지역의 분쟁이 확대되면서 제트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 항공업계에서도 운항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제트유 부족으로 항공기 운항이 멈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일부 국가가 필리핀 항공사에 연료 공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특히 장거리 노선에서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항공사들의 실제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최대 저비용 항공사인 세부항공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다음 달부터 운항 횟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베트남항공과 비엣젯 등 주변 아시아 항공사들도 노선 축소나 운항 중단을 검토하거나 시행 중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즉각적인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 에너지부는 항공사들과의 면담 결과, 현재 연료 재고는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전력 수급 안정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전기요금 상승 압력이 커지자,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부는 4월부터 석탄 발전소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주요 공급국인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은 전체 전력 생산의 약 6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유 역시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분쟁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총회
및 아시아 한상 필리핀 대회
총회 : Quest Plus Hotel(구 크림손호텔)
상품전 : 페스티벌 몰
2026 24일~28일 JUNE
Quest Plus Hotel (구 크림손호텔) Conference Center Manila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Asian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아시아한상연합회
Asian Federation of Korean Business
필리핀한상총연합회
Asian Federation of Korean Business in the Philippines
필리핀한인총연합회

마르코스·사라 불신 이유 1위는 부패…대통령·부통령 평가 엇갈려

뉴스도 쇼츠! NEWS GATE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을 믿지 않는 국민들은 가장 큰 이유로 모두 부패 문제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펄스아시아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신뢰도 35%, 불신도 44%로 불신이 더 높았다.

반면 두테르테 부통령은 신뢰도 54%, 불신도 26%로 신뢰가 더 높게 집계됐다. 마르코스 대통령 불신층은 부패 척결 실패를, 두테르테 부통령 불신층은 부패 연루 의혹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다만 마르코스 대통령 신뢰층은 오히려 반부패 노력을 가장 높이 평가해 상반된 인식도 확인됐다.

마르코스는 불신 우세, 사라는 신뢰 우세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은 그 이유로 가장 먼저 부패 문제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펄스아시아 여론조사에서는 필리핀의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불신 배경에서 모두 부패가 핵심 요인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됐으며, 응답자들에게 마르코스 대통령과 두테르테 부통령을 신뢰하거나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물었다.

조사 결과 마르코스 대통령의 신뢰도는 35%였고, 불신도는 44%로 더 높았다. 나머지 21%는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반면 두테르테 부통령의 신뢰도는 54%로 집계됐다. 불신도는 26%였고, 20%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을 불신한다고 답한 사람들 가운데 16.7%는 부패 척결에 실패했거나 부패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그다음 이유로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응답이 15.3%였고,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13.8%였다. 이어 물가를 잡지 못했다는 응답이 12.3%, 본인이 부패에 연루됐다고 본 응답이 12%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범죄와 불법 마약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10.1%였고, 마약 중독자라는 의혹 때문이라는 응답이 9.2%였다. 재난 피해자 지원이 늦다는 응답은 2.5%, 두테르테 가문을 겨냥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은 1.4%였다.

눈에 띄는 점은 마르코스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패를 드러내고 맞서 싸우는 모습을 가장 큰 신뢰 이유로 꼽았다는 점이다.

마르코스 대통령을 신뢰한 응답자 중 28.6%는 그의 반부패 노력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 이어 재난 피해자를 돕는 점이 12.4%, 필리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 추진이 10.9%, 농민 지원이 9.9%, 공공 인프라 보수가 4.9%로 나타났다.

두테르테 부통령의 경우 불신한다고 답한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5%가 그가 부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그다음으로는 정부를 향한 위협성 발언이 21.4%였고, 반복적인 욕설이 5.4%,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5.1%, 잦은 해외 방문이 4.5%로 조사됐다.



중부루손 한인사회-필리핀 내무부, '무결점 치안 시스템' 구축 합의

뉴스도 쇼츠! NEWS GATE

중부루손 한인사회와 필리핀 내무부가 클락·앙헬레스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대책에 합의했다. AI 기반 911 한국어 서비스 도입과 CCTV 90대 설치, 순찰 강화 등이 핵심이다. 노점상 관리 강화와 '안전·위생·맛' 인증 업소 제도도 추진된다.정부는 8월 15일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AI 911 한국어 서비스·CCTV 90대 확충… 8월 15일 광복절까지 완공 목표
- 내무부 장관 직접 주재 3차 실무회의, '안전·위생·맛' 우수업소 인증제 도입

필리핀 중부루손 한인사회와 필리핀 내무부(DILG)를 비롯한 주요 정부 기관들이 클락·앙헬레스 지역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 파격적인 치안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존빅 레물라(Jonvic Remulla) 내무부 장관 주재로 3월 25일 열린 3차 실무 회의에는 네스토르 사나레스(Nestor B. Sanares) 차관, 아라셀리 산 호세(Araceli A. San Jose) 지역 국장 등 내무부 핵심 인사와 아그네스 데바나데라(Agnes VST Devanadera) 클락개발공사(CDC) 사장 및 부사장, 앙헬레스 시청 관리자, 호세리토 비야로사 주니어(Joselito E. Villarosa Jr) 앙헬레스 경찰서장, 제스 멘데즈(Jess B. Mendez) 호셀리토 비야로사 주니어(Joselito E. Villarosa Jr.) 앙헬레스시 경찰국(ACPO) 국장, 제스 멘데즈(Jess B. Mendez) 필리핀 국가경찰(PNP) PRO3 지역청장 등이 총출동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한카지노 리조트 한대식 회장과 중부루손 한인회 최종필 회장이 참석해 실무 협의를 이끌었다.

■ AI 기술 접목한 911 한국어 응대… 치안 인프라 대대적 확충

이번 회의의 가장 획기적인 성과는 AI를 활용한 911 응급 시스템의 한국어 대응 서비스 도입 논의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신고 지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한인타운 전담 순찰 오토바이 5대 추가 배치로 기동력 강화 ▲한인타운 내 CCTV 90대 신규 설치를 통한 촘촘한 그물망 감시체계 구축 ▲민간 보안요원(시큐리티 가드) 바디캠 착용 의무화로 현장 대응력 및 투명성 제고 구체적인 치안 인프라 확충안도 확정됐다.

■ 거리 정화 및 '안심 업소' 인증제 도입

거리 치안의 고질적 문제였던 노점상(Vendor) 관리도 엄격해진다. 시청은 노점상들에게 공식 라이선스를 발급해 신원을 관리함으로써, 이들을 통한 마약 유통 및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한인회와 경찰 당국은 공동으로 '안전·위생·맛' 이 검증된 우수 업소를 선정, 공식 인증 스티커를 발부할 예정이다. 이는 한인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방문객들에게 강력한 신뢰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8월 15일 '광복절' 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 민관 협조 당부

존빅 레물라 장관은 "오는 5월 1일부터 관련 정책을 본격 시행하여, 한국의 광복절인 8월 15일까지 모든 치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 라고 밝혔다.

정부 측은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업소 내·외부 CCTV 설치 의무화 법률을 모든 한인 업주들이 재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해달라" 고 강조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 가드 고용 독려 등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부루손 한인회 관계자는 "지난 3월 18일 장관과의 1차 미팅, 23일 차관과의 2차 미팅에 이어 이번 3차 미팅을 통해 부서별 업무 세분화가 완료되었다" 며 "필리핀 정부가 한인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우리 한인 사회도 적극 협력하여 가장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MANILA KOREA TOWN






연혁



2018 마닐라 코리아타운 상인 조합 설립

2019 3월 주필리핀한국대사관에 코리아타운 설립 계획안을 제출
3년여 시간동안 마닐라시와 수차례 공청회

2021 2021년 2월 9일 마닐라 시장, 시의원 49명의 동의를 얻어 코리아타운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는 시정부 조례(Manila City Ordinances NO.8726)에 서명

Manila Korea Town SINCE 2021
마닐라코리아타운

주요활동

마닐라 코리아 타운

MANILA KOREA TOWN



Manila Korea Town SINCE 2021

마닐라코리아타운
회원업체 약도



국제 유가 불안에 필리핀 유류값 또 인상 전망…경유는 두 자릿수 급등 우려

뉴스도 쇼츠! NEWS GATE

다음 주 필리핀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3페소, 경유는 11~12페소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휘발유는 공급 불안 완화로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유는 다시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된다. 이 전망이 현실화하면 일반 경유는 리터당 140페소, 고급 경유는 150페소를 넘길 수 있다. 최종 유류 가격 조정안은 월요일 발표되며, 실제 조정은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필리핀 경찰청은 LPG 공급 불안 속 사재기와 폭리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경유 11~12페소 상승 예상, 일반 경유 140페소 돌파 가능성

다음 주 필리핀 주유소의 유류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휘발유는 비교적 소폭 인상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경유는 다시 두 자릿수 상승폭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나흘간 거래를 반영한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 지표 평균 플래츠 싱가포르(MOPS)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3페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관계자는 휘발유 가격이 원유 가격과 지역 내 공급 불안에 민감하게 움직이지만, 장기적인 공급 차질 우려가 다소 줄어들면서 상승세도 이전보다 누그러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유 가격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리터당 11~12페소 인상이 전망된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하면 일반 경유 가격은 리터당 140페소를 넘길 수 있다. 고급 경유 역시 150페소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다음 주 가격 조정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거래일이 하루 더 남아 있어 인상 폭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종 유류 가격 조정안은 월요일 발표되며 실제 인상 또는 인하 조치는 그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중동 전쟁을 둘러싼 긴장 완화 신호가 일부 나오고 있지만 국제 유가는 여전히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운항을 계속 제한하고 있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필리핀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3월 20일 기준 필리핀의 비축 물량은 경유 45일분, 휘발유 53일분, 등유 97일분이다.

한편 필리핀 경찰청은 액화석유가스(LPG) 사재기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호세 멜렌시오 나르타테스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은 LPG 공급이 빠듯한 상황에서 폭리를 노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사재기 세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경찰청 대변인 란둘프 투아뇨 준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폭리 목적의 판매업자와 사재기 업자, LPG 용기 불법 판매에 연루된 이들을 상대로 모두 6건의 형사 사건이 접수됐다. 적발 지역은 동비사야스, 카가얀밸리, 일로코스, 다바오 등이다.



유류업계 "부가가치세 없애야"…기름값 급등에 세금 인하 압박 커져

뉴스도 쇼츠! NEWS GATE

국제 유가 급등 속에 필리핀 석유업계와 운송단체가 유류 제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없애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재무부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도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업계는 수입 단계부터 세금을 빼면 소비자 판매가격에 바로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셸과 페트론 등 주요 업체도 대체로 이에 동의하며, 전 과정에 걸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름값 급등으로 운전기사와 일반 운전자 부담이 커지면서 운송단체의 파업과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운송단체, VAT 면제 촉구

국제 유가 급등 속에 필리핀 석유업계와 운송업계가 유류 제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없애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상원은 3월 26일 청문회에서 유류 가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재무부 칼로 아드리아노 차관은 부가가치세를 없애더라도 기대만큼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생산과 유통 과정 전반에 세금이 붙는 만큼 판매 단계의 세금만 없애면 앞단의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필리핀 독립석유회사협회 타냐 사밀라노 회장은 수입 화물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부가가치세를 없애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되면 그만큼 주유소 판매가격에도 곧바로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연료 가격이 리터당 100페소라면 다음 인상 폭으로 예상되는 12페소가량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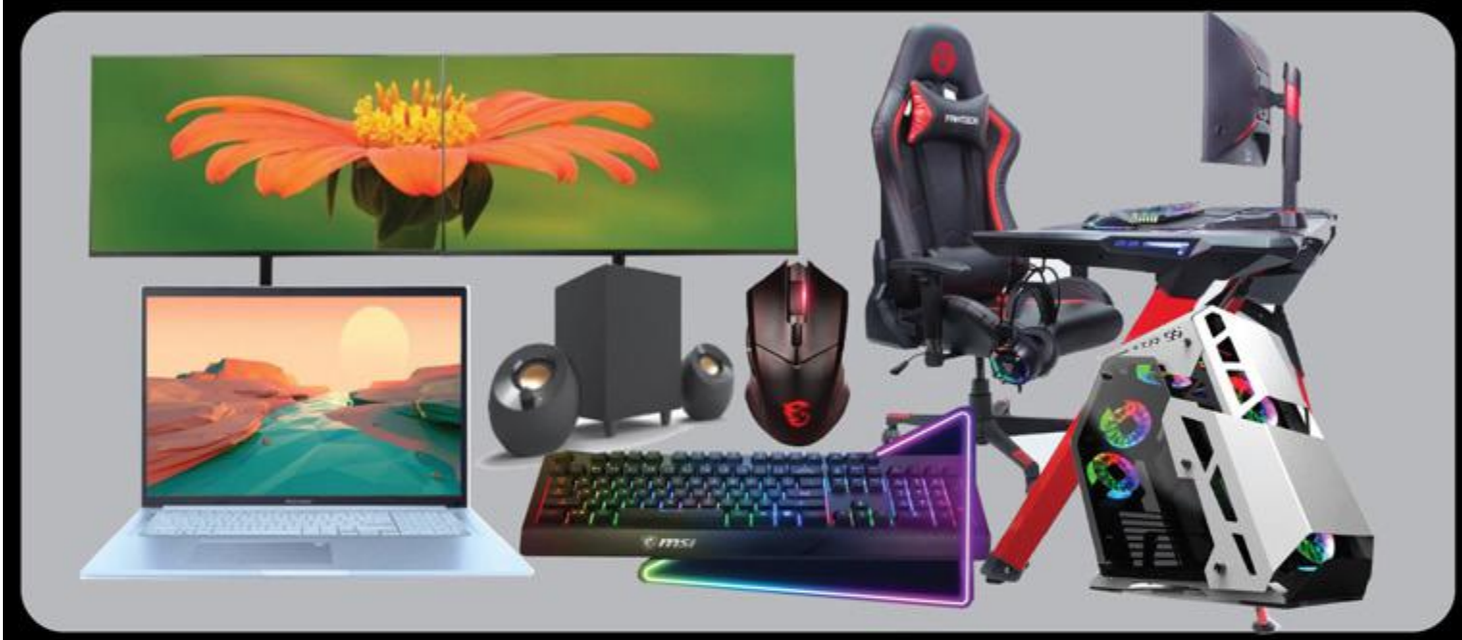
셸 필리피나스 로렐리 키암바오-오시알 사장은 기술적으로 보면 부가가치세 폐지가 더 빨리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료 반입부터 최종 판매까지 전 과정에 함께 적용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품 가격이 오를수록 부가가치세 부담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페트론 루빈 네포무세노 총괄매니저도 이에 동의하며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흔들리면서 필리핀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당 세 자릿수까지 올랐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소비세를 인하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는 비상 권한 행사 조치에 서명했지만, 실제 사용 시점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기름값 급등으로 운전기사와 일반 운전자 부담이 커지면서 운송단체의 파업과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WWW.ZEROSAM.COM

제로삼컴퓨터

Telegram ID: @zerosam1
Kakaotalk ID: zerosam

제로삼 컴퓨터 브랜치는 모두 직영점이기 때문에 구입한 모든 제품은
마닐라, 세부, 앙헬레스 동일한 워런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몇 년을 사용하는 컴퓨터, AS를 생각한다면 역시 안정적인 회사가 믿음직 스럽습니다



zerosam.com 에서 노트북 / 데스크탑 / LED ,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게이밍데스크, 체어 가격 확인 가능

노트북 수입 대행 서비스
매달 계속해서 돌어올 예정이고 특정모델을 원하심 경우
모델로 미리 알려주시면 저렴한 가격(인터넷 최저가)+수수료로
수입대행해 드립니다. 예약시에는 수수료만 내시고
노트북을 받으신 다음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신제품 한국산 게이밍, 가정용 노트북
한국산 중고 노트북 판매
제로삼컴퓨터 전 매장에서 1년간 보증 수리

컴퓨터 / 노트북 / LED 구입
중고 컴퓨터 / 노트북 / LED 고가 구입

컴퓨터/노트북/LED 수리
출장 서비스 또는 픽업-배달서비스

마닐라 올티가스 브랜치
연락처: 0917-894 - 2022
02-7757-0204
위치: 2층 팍챠두 콘도 올티가스 (연중무휴)

마닐라 마카티 브랜치
연락처: 0917-894 - 2022 / 02-8295-3003
위치: 1층 마카티 빅마마 옆, 구 꼬마김치 위치
벨에어 마카티 (연중무휴)

앙헬레스 브랜치: 0917-894-2022
위치: 2층 CNC PLAZA, 프렌드쉽 앙헬레스
미스터박 베이커리 빌딩(일요일 휴무)

세부 브랜치: 0917-894-2022 / 032-402-9343
위치: 2층 가이사노 컨트리몰
바닐라드 세부 (일요일 휴무)

Kakaotalk ID: zerosam
Telegram ID: @zerosam1

필리핀 "석유 재고 40~45일치"…에너지 비상사태 속 가격 급등 비상

뉴스도 쇼츠! NEWS GATE

필리핀이 에너지 국가비상사태 속에서 석유 재고가 40~45일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보다 급격한 가격 상승이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연료값 상승은 교통·식량·농업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리핀은 중동 의존도가 높아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공급보다 물가 충격 심각…연료값 두 배·전방위 경제 영향 확산

에너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필리핀이 현재 석유 재고가 약 40~45일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순한 공급 부족보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 국민 생활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리아 테리사 라자로 필리핀 외무장관은 27일 CNN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민들의 일상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상황이 단순히 에너지 수급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급격한 가격 상승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라자로 장관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교통, 식량, 비료,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료 가격은 이미 두 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운송 업계에서는 항의 시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24일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해 국가 에너지 공급에 즉각적인 위협이 발생했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는 연료와 식량, 의약품, 농산물 등 필수 물자의 안정적인 이동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사태는 1년간 유지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수급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필리핀은 에너지의 약 98%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이 동시에 발생하며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윈그룹 후원, 필리핀 클락서 코피노 가정 돕기 자선 골프 행사 개최

뉴스도 쇼츠! NEWS GATE

두윈그룹 후원으로 필리핀 클락에서 코피노 가정 지원 자선 골프 행사가 열렸다.

한국인 골퍼 등 140여 명이 참여해 수익금을 현지 가정에 기부했다.

행사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으며 민간 나눔 활동으로 의미를 더했다.

배우 박광현 등 연예인도 참여해 행사 취지를 알렸다.

140여 명 참가…골프 관광 수익금 기부로 나눔 실천

두윈그룹이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코피노 가정 지원 자선 골프 행사가 지난 3월 23일 필리핀 클락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인 골퍼 관광객들이 현지를 방문해 골프를 즐기며 마련한 수익금을 코피노 가정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약 140명이 참가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 행사는 필리핀 클락에서 이어지고 있는 민간 중심의 나눔 프로그램으로, 해외 기부와 지역 사회 지원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참가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조성된 기금을 현지 코피노 가정에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행사의 중심에는 메인 후원사인 두윈그룹이 있었다. 두윈그룹은 클락 로이스호텔과 마닐라 오카다호텔 숙박권을 제공하고 현금 기부에도 참여하는 등 행사 전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러한 후원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실제 지원 효과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배우 박광현과 가수 농수로, 이군이 행사에 참여해 현장에서 분위기를 이끌고 자선 활동의 의미를 알리는 데 힘을 보탰다. 이들은 참가자들과 함께하며 행사 취지를 공유했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온정을 전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두윈그룹과 협력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루만에 배송
KP 항공택배

많은 고객의 신뢰를 받고 있는
오랜 경력의 필리핀 대표 항공택배

✡ 하루만에 배송 약속 !
✡ 최적가 요금 제공 약속 !
✡ 안전배송(배상책임제) 약속 !

모든물품 배송가능 통관비 無 관세 無

월~금 매일선적 월~토 매일배달

한국 ⇅ 필리핀 서류특송 물품특송

1

화물전용기
핸드캐리나 여객기가 아닌 화물 전용기를 이용 포장-운반-배송 등 UPS 최신 물류 시스템을 통해 안전, 신속, 정확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2

하루만에 배송
악천후, 자연 재해를 제외하고 모든 물품을 하루만에 안전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3

종류제한無
일반물품, 산업/건설 자재, 전자제품, 음식/농수산물 등 종류의 제한없이 모두 배송가능합니다.
(스프레이 등 가연성 물품 제외)

4

운송장번호제공
운송장 번호를 제공해 드리며 물건의 현재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추가금액無
통관시 세금/관세 등 추가금액 절대 없음

6

많은기업들이 이용
이미 많은 한국 기업 & 필리핀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정비, 건설, 보안, 화장품, 악세서리, 슈퍼마켓 등)

*무게보다 부피가 클경우 부피무게 적용 *현지배송비 별도(근거리:4천원, 원거리:6천원~) *지방은 현지 로컬택배 실비 적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 퀵서비스 이용시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552-12 금강펜테리움 지식산업센터 457호
KP 필리핀 받는 분 성함 T) 010.2709.8996 / 070.8098.5200

주소에도 꼭 필리핀 받는 분 성함을 적어주세요! (중요!)
예)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552-12 금강펜테리움 지식산업센터 457호 "KP 홍길동"

구매대행 & 묶음배송 추가 수수료 없음.

상담전화 한국 070-8098-5255 KPPS1
필리핀 0917-179-6597 & 0917-509-6597 KPPS2

한국 사무실(근무시간 : 월~금, 오전9시~오후6시)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552-12 금강펜테리움 지식산업센터 457호
T) 010.2709.8996 / 070.8098.5200

필리핀 사무실(근무시간 : 월~토, 오전9시~오후6시)
마닐라 지점) G/F, Corinthian E. Regency, Ortigas Ave., Pasig, M. Manila.
세부 지점) 256-A-C M.L Quezon Ave., Maquikay, Mandaue, Cebu.
다바오 지점) Dr.A HM Bldg., Dacudao St., Davao City.

자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 http://www.kppskorea.com 을 이용해 주세요

OECD 한국 경제 전망

■2025년 12월 전망치 ■2026년 3월 전망치

단위: %(전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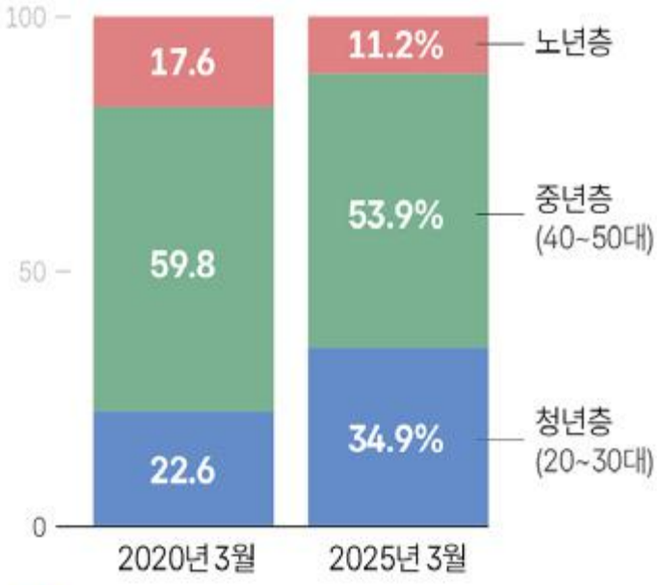
연합뉴스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형민 기자 = circlemin@yna.co.kr
20260326

고위험가구 내 연령대별 비중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가구

가구 수 기준



연합뉴스 자료: 한국은행

원형민 기자 = circlemin@yna.co.kr
20260326

국제유가 추이

현지시간 기준, 단위: 배럴당 달러

브렌트유

ICE선물거래소
5월 인도분 선물 종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뉴욕상품거래소
5월 인도분 선물 종가



연합뉴스 자료: ICE선물거래소, 뉴욕상품거래소, 연합인포맥스

이재윤 기자 = yoon2@yna.co.kr/20260327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전 신호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협상을 통한 종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红运火锅
GOOD LUCK
HOT POT
红运盛宴
红运火锅
전통 중화요리의 깊은 풍미를 계승하며,
최고의 미식 경험을 제공합니다.
중국 전통 객잔의 미학과 우아한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이곳에서,
중화 문화와 미식 예술의
진정한 융합을 경험해보세요
호화로운 연회와 중국 전통 경극을 함께 체험해 보세요
다양한 VIP룸에서 최고의 맞춤 서비스로 모십니다.
프라이빗 룸 예약 핫라인
BGC CONTACT NO.: +63 954 088 8666
PASAY CONTACT NO.: +63 950 461 8888
CEBU CONTACT NO.: +63 967 066 6888

필리핀한국국제학교 조숙경 행정실장, 교육부장관상 수상 영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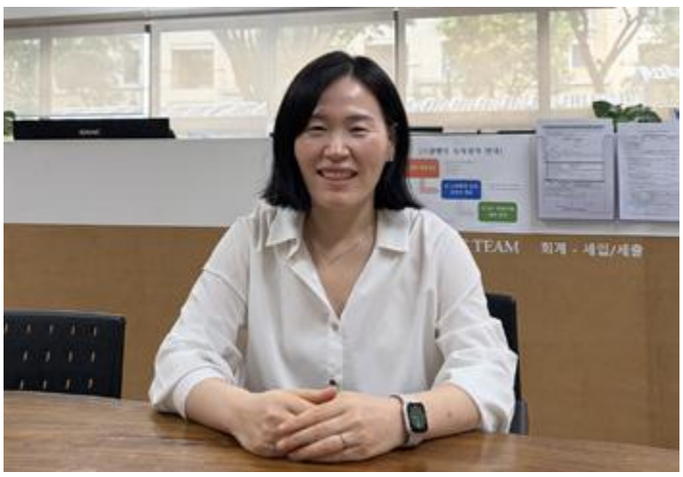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교육 현장 정상화 및 학교 운영 혁신 공로 인정
◈ 급식 환경 대폭 개선, 전자금융서비스 도입 등 학교 행정 현대화 주도

필리핀한국국제학교(교장 최성보, 이하 KISP)는 조숙경 행정실장이 코로나19 이후 교육 환경 회복과 학교 운영 혁신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해외 한국국제학교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검소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과 쾌적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교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조숙경 행정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전면 대면 수업 전환 과정에서 필리핀 교육당국의 지침에 부합하는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등교 수업 승인을 이끌어냈다.

특히 대규모의 급식실 환경 개선 공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노후화된 급식 기구와 가구를 전면 교체하여 위생



적인 급식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식단에 대한 영양학적 분석과 학생 선호도 조사를 병행하여 급식 만족도를 대폭 향상시켰다.

교육 환경 회복을 위한 시설 정비도 체계적으로 수행했다. 장기간 미사용으로 방치되었던 교실을 정비하고, 기자재 226점과 미사용 교복 300벌을 정리하는 등 교수학습 공간을 정상화했다. 이어 ▲행정실 및 로비 환경 개선 ▲교사동 내부 도색 ▲소방 설비 보완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등을 연차별로 추진하여 학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만족하는 학습·근무 환경을 완성했다.

행정 혁신 부문에서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전격 도입하여 수납 및 지출 시스템을 온라인화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 회계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퇴직적립금과 시설적립금 적립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교수학습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학생 중심'의 예산 운영 기조를 확립하였다.

조숙경 행정실장은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필리핀 내 최고의 명문 한국국제학교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KISP 최성보 교장은 "조숙경 행정실장은 헌신적인 태도로 학교 운영의 기틀을 체계적으로 다진 핵심 인재"라며, "이번 수상은 KISP의 행정 역량과 교육 환경이 본국 교육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매우 뜻깊은 결과"라고 격려했다.

필리핀 속의 작은 한국, KISP-TIS '우정의 가교'를 잇다

◈ 한국국제학교(KISP), 타기그 통합 학교(TIS)와 문화 교류 및 봉사 활동 실시
◈ 양교 교장,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미래 인재 육성 위해 손잡아

필리핀한국국제학교(교장 최성보, 이하 KISP)는 지난 3월 23일(월), 필리핀 타기그 시에 위치한 타기그 통합 학교(Taguig Integrated School, 이하 TIS)를 방문하여 양국 학생 간의 우의를 다지는 문화 교류 및 교육 봉사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교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KISP 학생들이 현지 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 소양과 봉사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KISP 최성보 교장이 직접 참석하여 TIS의 시프리아노 비스코 주니어(Dr. Cipriano M. Bisco Jr.) 교장과 만나 양교의 지속적인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TIS 농구장에서 열린 열렬한 환영식으로 시작되었다. TIS 학생들은 필리핀 전통 무용 공연을 선보이며 KISP 방문단을 맞이했으며, 이에 화답하여 KISP 학생들은 준비해 온 한국 간식과 학용품 등 정성 어린 기념품을 전달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어 진행된 본 프로그램에



서는 TIS의 자랑인 Cariro 빌딩 내 과학 특성화 학급(7~10학년) 학생들과 KISP 학생들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활동을 이어갔다.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교육 활동에 참여하며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KISP 최성보 교장은 축사를 통해 "TIS 과학 특성화 학급의 우수한 교육 열기와 체계적인 환경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오늘의 뜻깊은 활동이 양교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발판이 되길 바라며, 비스코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우정이 지속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TIS 시프리아노 교장 역시 "KISP 학생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교류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국제적인 시각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KISP는 이번 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타기그 교육청 및 현지 공립학교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여, 학생들이 필리핀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ISP, '마음건강 캠페인'으로 행복한 등굣길 열어

◈ 학생회 주도 신학기 적응 돕는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인식 확산
◈ 등굣길 간식 나눔과 응원 메시지로 사제 간 정 나누며 즐거운 학교 문화 조성

필리핀한국국제학교(교장 최성보, 이하 KISP)는 지난 지난 3월 13일(금) 등교 시간, 본교 중앙 현관에서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학기 학교 적응을 돕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6학년도 마음건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회 임원들과 담당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신학기를 맞아 낯선 환경에 적응 중인 학생들을 격려하고 자살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이른 아침부터 모인 학생회 임원들은 ▲마음 건강, ▲함께해서 행복해요, ▲생명 존중 등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간식을 직접 배부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교감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간식 선물과 응원에 밝은 미소를 지으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다.

윤원재 학생회장은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끼길 바란다"며, "우리 손으로 직접 준비한 행사를 통해 즐거운 등굣길을 만들 수 있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KISP 최성보 교장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대견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즐겁게 등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ISP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감을 높여 생명존중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호르무즈 봉쇄 여파…아시아, 코로나식 비상대응 재가동

뉴스도 쇼츠! NEWS GATE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은 연료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에 대응해 세금 인하, 원유 수입 다변화, 비상사태 선언 등을 시행했다. 각국은 재택근무·에너지 절약 등 코로나19 시기 정책을 다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금리 인하가 어려워 정책 대응이 더 복잡해졌다.

유가 급등 속 재택근무·보조금 확대…중앙은행은 금리 딜레마 직면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공급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시기 사용했던 비상 정책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 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아시아 지역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으로 꼽힌다.

AFP에 따르면 베트남 상공부가 발표한 경유 가격은 리터당 3만9660동으로, 전쟁 직전보다 약 105% 상승했다. 같은 기간 휘발유 가격도 약 68% 올랐다. 급등한 연료비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생활 방식까지 바뀌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카타르, 쿠웨이트, 알제리, 일본 등에 연료 지원을 요청했고, 러시아와는 석유·가스 생산 협력에 합의했다. 또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환경보호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필리핀은 상황이 더욱 긴박하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이 나라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과 협의를 통해 제재 대상국으로부터 원유를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미 필리핀 대사는 미국 국무부와 제재 면제 문제를 논의 중이며, 베네수엘라와 이란산 원유도 선택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추가 공급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최소 45일간의 연료 재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은 추가로 100만 배럴을 확보해 비축량을 늘릴 계획이다. 실제로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필리핀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한시적 제재 완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연료비 상승과 정부 대응 부족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마닐라에서는 파업이 예고됐고, 정부는 석탄 발전 확대와 환경 기준이 낮은 연료의 임시 사용을 허용했다.

다른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도 대응에 나섰다. 뉴질랜드는 저소득층에 현금 지원을 시작하고, 호주는 연료 가격 폭리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태국은 공무원 해외 출장 중단과 냉방 온도 제한, 재택근무를 지시했으며, 파키스탄은 학교 휴교와 재택근무 확대를 시행했다. 스리랑카는 주 1회 공휴일을 지정했고, 싱가포르는 에너지 절약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이번 위기는 코로나19 때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당시에는 수요 감소에 대응해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확대했지만, 현재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어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실제로 호주 중앙은행은 이미 금리를 두 차례 인상했으며, 일본과 유럽 등도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기에 달러 강세까지 겹치며 아시아 국가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제니퍼 매키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가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앙은행이 어려운 선택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정책 방향은 유가 상승의 원인과 지속 기간,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수감 중에도 마약 유통 지휘…박왕열 구속

뉴스도 쇼츠! NEWS GATE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박왕열이 국내 마약 유통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총 236명이 적발됐으며, 유통 규모는 약 3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추가 범행과 조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236명 규모 마약 조직 수사 확대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국내 마약 유통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박왕열이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영장심사에 출석했지만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살인 혐의로 복역 중이면서도 국내 마약 유통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판매·공급·밀반입·자금관리 조직 등 총 42명이 검거됐고, 구매자를 포함하면 적발 인원은 236명에 달한다. 유통 방식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전달하는 '던지기' 수법이었다.

압수된 마약은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총 30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박왕열은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교도소 내 투약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스게이트
NEWSGATE
필리핀 최초의 한인 종합 매거진 Since 1996

뉴스게이트 잡지 온라인 서비스

이젠! 뉴스게이트도 온라인으로 보실수있습니다!

개인 카톡으로 매주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보는 필리핀 정보!



1.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기

TALK 뉴스게이트 & 필살기

"먼저보기" 설정하시면 모든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보실수 있습니다!

2. 페이스북 페이지 라이크&팔로우 하기

필살기 - 뉴스게이트 필리핀 온라인 매거진



4. 온라인 잡지보기

https://issuu.com/enewsgate

4. 필살기 웹사이트에서 클릭하기

www.philsalgi.com



UP·DLSU·아테네오, 2026 QS 학문 분야별 세계대학 순위 진입

뉴스도 쇼츠! NEWS GATE

필리핀대(UP), 데라살대(DLSU), 아테네오데마닐라대가 2026 QS 세계 대학 학문 분야별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UP는 도서관정보학에서 세계 100위권에 처음 진입했고, 모두 22개 분야에서 순위권에 들었다. DLSU는 경영학과 교육 분야에서 필리핀 최고 평가를 받았고, 여러 전공에서 사립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아테네오는 7개 분야에서 순위에 올랐으며, 신학·신성학·종교학 분야에서는 세계 100위권에 포함됐다. QS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학문 분야 순위 상승 흐름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UP 22개 분야 진입, 아테네오 신학 100위권



필리핀대(UP), 데라살대(DLSU), 아테네오데마닐라대가 2026 QS 세계대학 학문 분야별 순위에 포함되며 주요 전공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다시 확인했다.

QS는 전 세계 100개국 약 1900개 대학이 운영하는 2만 1000개 이상의 학과와 프로그램을 평가했다. 이번 순위는 55개 세부 전공을 5개 큰 계열로 나눠 집계했다.

필리핀대는 도서관정보학 분야에서 세계 100위권에 들며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이 분야에서 필리핀대는 지난해 순위에 들지 못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상위권에 진입했다.

호텔·레저경영 분야에서는 세계 200위권에 포함됐다. 농림학, 인류학, 고고학, 영문학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0위권을 유지했다.

이 밖에도 생명과학, 경영학,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 컴퓨터과학·정보시스템, 경제학·계량경제학, 교육학, 환경과학, 지리학, 역사학, 법학, 언어학, 의학, 수학, 물리·천문학, 정치·국제학, 사회학 등 16개 분야에서 세계 순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순위권에 든 전체 전공 분야는 모두 22개로 늘었다.

계열별 순위에서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사회과학·경영 계열은 58계단, 인문예술 계열은 74계단 올랐다. 생명과학·의학, 공학·기술 분야에서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해 국제적 평가가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렌 심아코 필리핀대 학사 담당 부총장은 "이번 결과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교육 과정을 강화해 국가대표 대학에 걸맞은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학문과 연구 성과를 통해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대는 앞서 발표된 2026 QS 세계대학 순위에서도 필리핀 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1500개 이상 대학 가운데 362위에 올랐다.

데라살대는 경영학 분야에서 401~450위, 교육·훈련 분야에서 351~400위를 기록하며 해당 분야 필리핀 최고 대학으로 평가받았다.

또 컴퓨터과학·정보시스템 551~600위, 경제학·계량경제학 451~500위, 영문학 201~250위, 정치학 301~400위에서는 필리핀 사립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데라살대는 계열별 순위에서도 인문예술 분야 공동 365위, 사회과학·경영 분야 공동 382위로 상승했다.

아테네오데마닐라대는 7개 세부 분야에서 세계 순위에 올랐으며, 신학·신성학·종교학 분야에서는 세계 100위권에 포함됐다.

세부 순위를 보면 신학·신성학·종교학 51~100위, 인류학 101~200위, 영문학 201~250위, 정치·국제학 301~400위, 사회학 301~375위, 경영학 451~500위, 경제학·계량경제학 551~700위였다.

계열별로는 인문예술 분야 공동 333위, 사회과학·경영 분야 401~450위에 올랐다.

QS는 남아시아가 비율상 가장 크게 개선된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순위가 오른 학문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학이 순위에 포함된 분야는 컴퓨터과학·정보시스템과 의학이었으며, 이 두 분야가 전체적으로도 가장 많은 상승 움직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언어학은 비율상 가장 큰 개선을 기록했고,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은 신규 진입 대학이 가장 많았던 분야로 꼽혔다.

아울러 남아시아는 순위가 오른 대학 비중이 40%로 가장 높았고, 동남아시아가 38%, 호주·뉴질랜드가 37%로 뒤를 이었다. QS는 이를 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은 비교적 고른 움직임을 보였고, 북아프리카는 신규 진입 비중이 32%로 높아 순위 참여가 확대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이에 비해 동유럽과 동아시아는 순위가 하락한 대학 비중이 각각 43%로 가장 높았고, 서유럽과 북미 역시 적지 않은 하락세를 보였다고 QS는 전했다.

재필리핀한인언론인협회 도움을 주신 분들

2024년		
임 완 순	재필리핀대한체육회	30,000 페소
윤 만 영	한인총연합회	100,000 페소
김 기 영	고충처리위원회	100,000 페소
최 종 필	중부루손한인회	70,000 페소
김 종 팔	마닐라코리아타운	70,000 페소
김 인 덕	대한노인회 필리핀지회	20,000 페소
2025년		
김 대 중	민주평통 필리핀지회	20,000 페소
신 호 철	남부한인회	10,000 페소
안 일 호	마닐라코리아타운	30,000 페소
윤 만 영	한인총연합회	100,000 페소
김 기 영	자유총연맹 필리핀지부	50,000 페소
김 춘 배	한인총연합회 고문	10,000 페소
김 인 덕	대한노인회 필리핀지회	20,000 페소
최 종 필	중부루손한인회	50,000 페소
김 기 확	바기오한인회	10,000 페소
이 동 수	망고장학회 이사장	100,000 페소
강 정 식	재필리핀대한체육회	20,000 페소
이 영 석	호프미션크리스챤스쿨	20,000 페소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차, 필리핀 한국전 참전기념시설 개보수…"역사 가치 계승"

뉴스도 쇼츠! NEWS GATE

현대자동차그룹이 국가보훈부와 함께 필리핀 내 한국전 참전 기념시설을 개보수한다.

대상은 필리핀 국립 영웅묘지 참전비와 한국전 참전 기념관이다.

시설 개선과 함께 역사 교육 기능 강화도 추진된다.

현대차그룹은 재난 지원, 청소년 교육 등 현지 사회공헌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국립 영웅묘지 참전비·기념관 정비…재난 지원·청소년 사업도 확대



현대자동차그룹이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필리핀 내 한국전 참전 기념시설의 보수와 환경 개선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필리핀 국립 영웅묘지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비와 한국전 참전 기념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필리핀은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 세 번째로 한국전쟁에 병력을 파병한 국가다. 양국은 수교 77주년을 맞았으며, 해당 시설들은 당시 파병된 필리핀 한국 원정군(PEFTOK) 5개 전투대대, 총 7420명의 병력과 가족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됐다.

1967년에 세워진 참전비는 로, 상단에는 국제연합 상징과 한국·필리핀 국기가 부착돼 있다. 하단에는 전사자 11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해당 기념물은 2009년 한 차례 보수된 이후 노후화가 진행돼 이번에 다시 정비가 추진된다.

현대차그룹은 균열과 변색을 보수하고, 주변 계단과 바닥의 대리석을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안내판과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방문객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참전비에서 약 1.2㎞ 떨어진 한국전 참전 기념관은 2012년 건립된 시설로, 관련 기록물과 사료를 전시하는 박물관과 도서 공간을 갖추고 있수와 내부 가구 교체가 진행되며, 향후 리모델링 여부도 검토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다른 한국전 참전국의 추모시설 환경 개선도 확대 검토할 방침이다. 동시에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의 보존과 관리에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설 현황 점검과 콘텐츠 구축, 공간 활성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회사 관계자는 "참전용사와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기리는 일은 미래 세대에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전달하는 작업"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의미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재난 대응을 지원하는 '현대 휠스 온 더 고!' 프로젝트를 통해 차량과 구호 물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호프 인 어 백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학용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자동차 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며, 재단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이러한 활동이 재난 지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필리핀, 대통령에 연료세 감면 권한 부여…에너지 위기 대응

뉴스도 쇼츠! NEWS GATE

필리핀 정부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연료세 감면 권한을 부여했다.

유가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최대 3개월간 연료 물품세를 인하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또한 200억 페소 규모의 긴급 기금을 활용해 연료 비축도 확대한다.

정부는 공급 안정과 가격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두바이유 80달러 넘으면 감세 가능…긴급 기금 200억 페소도 가동

필리핀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연료 물품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법안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관보 또는 신문에 공포된 뒤 15일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내국세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유가 상승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아시아 원유 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두바이유의 1개월 평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초과할 경우, 대통령은 범부처 예산조정위원회(DBCC)의 권고를 바탕으로 연료 물품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감세 조치는 한 번 시행 시 최대 3개월 동안 유지되며, 전체 적용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됐다. 다만 대통령이 실제로 언제 해당 권한을 행사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연료 공급 안정 확보를 위한 재정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에너지부는 26일, 약 200억 페소 규모의 긴급 기금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미 가동됐다고 발표했다.

이 기금은 말람파야 천연가스전에서 발생한 로열티 수입을 기반으로 조성된 '말람파야 기금'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경유와 휘발유 등 연료를 최대 200만 배럴까지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연료 공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필리핀한인총연합회
UNITED KOREAN COMMUNITY ASSOCIATION IN THE PHILIPPINES

2026년도 후원금 현황

여러분의 후원금이 필리핀 한인 동포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2026년도 후원금 현황 〈2026년 2월 기준 / 총 5,140,000 페소〉

성 명	COMPANY NAME	AMOUNT (peso)
윤만영	필리핀한인총연합회 회장	2,000,000
이동수	필리핀망고장학회 이사장 / 코스모메디컬 회장	350,000
이원주	필리핀한인총연합회 고문 / LHK CREATION 회장	200,000
심재신	필리핀한인총연합회 이사장 / SOLPIA MARINE & SHIP MANAGEMENT INC.	200,000
임성빈	BESCO CLARK PHILIPPINES GROUP OF COMPANIES CORP 대표 / 민주평통 동남아북부협의회 청년위원장	150,000
양한준	재필리핀한인언론인협회 회장	120,000
박일경	필리핀한인총연합회 고문	100,000
장재중	필리핀한인총연합회 고문 / PISOPAY 회장	100,000
변재흥	한인총연합회 고문 / 코렉스해운항공주식회사 회장	100,000
이장일	한인총연합회 고문 / Korpil SM Corp 회장	100,000
송훈석	아시아한상필리핀총연합회 , 쏭마트, Poinix 회장	100,000
임이곤	조인라이프 아페리토타워 회장	100,000
김종팔	WORLDWIDELINK 회장	100,000
신호철	마닐라남부한인회 회장	100,000
허범칠	PARPLA MARITIME AGENCY CORP. 회장	100,000
최종필	중부루손한인회 회장	50,000
김기영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회장	50,000
강정식	재필리핀대한체육회 회장	50,000
이영애	BDO 상무	50,000
	하나투어 법인장 최용원 / 비자신청센터장 안규석	50,000
장은영	필리핀 한국여성연합회 회장	50,000
장만석	럭키해운항공 회장	50,000
오해성	서울호텔 클락 대표	50,000
김기동	탑클래스유학원 대표	50,000
윤병환	Aimtech 대표	50,000
배만석	BH Global Builders 대표	50,000
이호익	필리핀한인무역협의회 회장	50,000
케빈리	처음처럼 회장	50,000
이일노	중부루손 호남향우회 회장	50,000
김태욱	신 마산가든(마카티) 대표	30,000
한삭연	재필리핀해병대전우회 회장	20,000
이동우	재향군인회 필리핀지회 회장	20,000
김은숙	리더스 아카데미 비에프홈 원장	20,000
김기헌	GFLEX MS GOLFTECH PH INC. 대표	20,000
김명희	마따붕까이 아쿠아월드 대표	20,000
임미경	샤부야끼, 돈이지 대표	20,000
안일호	마닐라코리아타운협회 회장	20,000
류동현	그린아시아 ATV 대표	20,000
한종석	재필리핀대한골프협회 회장	20,000
박종희	샤부칸 대표	20,000
이경모	다래정 대표	20,000
이지훈	명가 대표	20,000
최선호	필리핀 호남향우회 회장	20,000
김원갑	김원갑 한의원 원장	20,000
김광석	민주평통 동남아북부협의회 부회장	20,000
노준환	체사모 회장	20,000
여도수	한우도마 대표	20,000

2026년도 회원가입 현황 〈존칭생략 / 가입순 / 총 32명〉

강광신	강제주	계인철	김기영	김용섭	김은희
김종화	김진숙	노준환	박민정	박현숙	서영채
송훈석	신성호	신호철	윤만영	이동수	이동우
이명희	이원정	이종섭	이지훈	이진욱	임점자
정세정	정양선	주호	최성보	최혁	한병홍
한충수	황종일				

알림 후원금 및 한인회비 보내주실 곳

BDO 0016-880-50762
- 예금주 : United Korean Community Association inc.
- 문의전화 : 0917-886-4848, 02-8886-4848
- 카톡문의 : goukca

GCash



박장우	쑹트레이딩 대표	20,000
정헌혁	WINGLOBAL INC.	20,000
홍종옥	로얄CC (클락)	20,000
최상준	마닐라남부한인회 부회장	20,000
박명규	엄마손김치 회장	20,000
김춘배	필리핀한인총연합회 고문	10,000
강제주	민주평통 동남아북부협의회 회장	10,000
엄현종	필리핀한국상공회의소 회장	10,000
이지현	코윈 회장	10,000
황선희	클럽카메론 대표	10,000

한인총연합회 가입 혜택

의료 혜택	업소 할인혜택	상담 서비스
한국 병원 온라인 진료 진료/상담/예약/감면/할인 등	한인 업소 할인 혜택 식당/레슨/물류/리조트 등	각종 상담 및 서비스 법률/서류/업무/보험/통역 등

제휴업체

한인총연합회와 손잡고 발전하는 동포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휴업체를 모집합니다. 서비스 업체 및 식당 사장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문의전화 : 0917-886-4848, 02-8886-4848

2026년 2월 알림판

조화로운 변화 함께하는 동포사회

필리핀, ‘e-트랜비아’ 도입…19세기 전차의 친환경 부활

뉴스도 쇼츠! NEWS GATE

필리핀이 전통 전차를 현대화한 친환경 교통수단 ‘e-트랜비아’를 도입했다. 전기 기반 무배출 차량으로 인트라무로스에서 시범 운행 중이다.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기술 자립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향후 전국 확대와 대량 생산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인트라무로스 시범 운행 시작…전기 기반 관광 교통 확대 추진

필리핀이 과거 마닐라를 상징했던 노면 전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친환경 교통수단 ‘e-트랜비아’를 선보이며 지속 가능한 관광 교통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필리핀 과학기술부와 인트라무로스 관리청은 e-트랜비아를 공식 출시하고 지난 3월 19일부터 일반에 공개했다. 현재 이 차량은 마닐라 인트라무로스 지역의 주요 역사 유적지를 순환하는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다.

e-트랜비아는 18인승 저속 전기 차량으로, 19세기 후반 운행되던 전차의 외형을 유지하면서도 내부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적용해 완전 무배출 교통수단으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와 학계의 협력으로 추진됐다. 카가얀 주립대학교는 차량의 기계 조립과 현가장치를 담당했고, 필리핀대학교 딜리만 캠퍼스는 동력 시스템 통합을 맡았다. 또한 차체와 지붕에는 필리핀에서 개발된 아바카 섬유 복합 소재가 적용됐으며, 전용 충전 인프라도 함께 구축됐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시범 운행을 시작으로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운행 중인 1대 외에도 추가 차량을 도입하고, 사우스 코타바토와 카가얀, 말라카냥 궁전 등 주요 지역으로 확대 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 유치와 함께 대량 생산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레나토 솔리둠 주니어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번 사업이 연료 가격 불안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 모빌리티의 국내 생산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JSPK AUTOWORKS

자동차 정비

올티가스
메트로웍

소중한 고객의 차량을
한국인이 직접 진단하고 상담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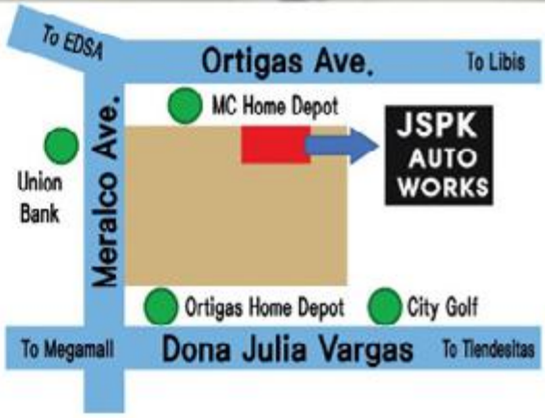
★ 하체 수리
★ 엔진 수리
★ 에어콘 수리
★ 타이어 교체
★ 블랙박스 설치
★ LTO 등록 대행
★ 자동차 보험

THE COMPLETE CAR SERVICE CENTER

JSPK AUTOWORKS

문의 (한국인직통) 0917-676-1856
(로컬직통) 0917-468-8532

Building E. Metrowalk Commercial Complex
MERALCO ave, PASIG city



미, 필리핀 수빅에 탄약 생산거점 추진…"전쟁 기지화 우려"

뉴스도 쇼츠! NEWS GATE

미국이 필리핀 수빅만에 탄약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란 전쟁으로 탄약 부족이 심화되면서 보급 거점 확보가 목적이다. 필리핀 내에서는 안보 협력 강화와 군사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 통제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탄약 부족 대응 위한 전략 거점…필리핀 내부 찬반 갈등 확산

미국이 필리핀 서부 수빅만에 탄약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필리핀 내부에서 찬반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이번 계획은 중동 지역 전쟁으로 탄약 수요가 급증한 미국이 보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산업회복파트너십(PIPIR)은 필리핀에 30㎜ 탄약을 조립하고 포장하는 시설 설립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협력체에는 필리핀과 호주, 싱가포르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 전쟁 이후 하루 탄약 비용이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추가 예산을 요청하는 등 군수 지원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과거 미군 해군기지가 있던 수빅만이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구상은 이미 지난해부터 논의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하며 탄약 생산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르코스 대통령도 해당 시설이 자국 방위력 강화와 남중국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필리핀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동맹국 내 미군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례처럼, 미국이 자국 필요에 따라 군사 자산을 재배치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야권 세력은 필리핀이 미국의 전쟁을 위한 물류 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무기 생산이 분쟁을 확대할 수 있으며, 국가를 군사화 방향으로 이끌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방산 협력이 필리핀이 전략적 중요성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중국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동맹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어

필리핀 No.1 방역 전문 한국회사

자성 방역
PEST MANAGEMENT SERVICES



< 자성방역을 선택하는 7가지 이유 >

1. 건강하고 안전한 방역
2. 시간을 지키는 방역
3. 신뢰할 수 있는 방역
4. 책임감 있는 방역
5. 구석구석 꼼꼼한 방역
6. 오랜 경험과 노하우
7. 오직 대한민국 약품과 제품만 사용

[방역 요금표]

● 개인주택 , 콘도

1회 : 2,500 + 방 개수 x 600 (예) 방 3개: 2500 + 3 x 600 = 4,300 페소

6개월 회원 (3회권) : 10% 할인 + 살균소독 서비스 추가, 1년 회원 (6회권) 15% 할인

● 식당 , 마트, 사무실

2,500 + m2당 12페소 (예) 100m2 : 2,500+100 x 12 =3,700 페소

월 방역 시 : 10% 할인 월2회 방역 시 : 15% 할인

● 흰개미 방역

매주 3회 방문 : (5,000 + m2당 60페소) x 3회

(예) 100m2 : (5,000 + 100 x 60) x 3 = 33,000 페소

CONTACT US

(Kr) 0917 328 1479

(En) 0955 608 7706

(Line) 02 8243 5383

larry0813@gmail.com

ID : larry0813

JASUNG Pest Management Services 515 San Vincente Ferner, San Antonio, Paranaque City

반중 기조서 선회…마르코스 "중국 비료 지원에 감사"

뉴스도 쇼츠! NEWS GATE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중국의 비료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

남중국해 공동 자원 개발 협상 재개 의지도 밝혀 관계 변화가 감지된다.

에너지 부족과 경제 압박이 외교 노선 변화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이어온 반중 기조에서 현실적 협력으로 선회하는 흐름이다.

에너지 위기 속 남중국해 자원 협력 재개 시사…중국과 관계 완화 조짐



강경한 반중 노선을 유지해 온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최근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양국 관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남중국해에서의 공동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중국과의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오랜 기간 논의돼 왔지만 영토 분쟁 문제로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오히려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은 원유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는 구조로, 최근 에너지 공급 불안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원유 수입까지 검토하는 등 대안을 모색 중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필리핀은 그동안의 대중 강경 기조에서 벗어나 협력 가능성을 다시 타진하는 모습이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특히 중국의 비료 지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필리핀은 비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다. 최근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로 글로벌 비료 시장이 불안정해졌지만, 중국은 자체 공급망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에 대한 비료 수출도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은 비료 분야에서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지원을 제공해 왔다"고 평가했다.

한편 필리핀은 2022년 이후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이어왔지만, 최근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외교 전략에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분석에서는 미중 관계 완화 흐름과 맞물려 필리핀의 대중 정책도 조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칠성, 필리핀펩시 재상장 추진 가능성…FI 엑시트 변수

뉴스도 쇼츠! NEWS GATE

롯데칠성음료가 필리핀펩시 재상장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FI 투자금 회수와 지분 유동화 필요성이 주요 배경이다.

2030년까지 재상장 약정과 풋옵션 부담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롯데칠성은 현재 수익성 개선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2030년 약정·풋옵션 부담…지분 유동화 필요성에 재상장 기대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 필리핀펩시의 재상장 가능성이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금 회수 필요성과 함께 롯데칠성 역시 지분 유동화가 필요한 상황이 맞물리면서다.

롯데칠성은 2010년 필리핀펩시 지분 34.4%를 약 1170억 원에 인수하며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2013년과 2018년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했고, 2020년 공개매수를 통해 상장폐지를 진행하며 지분율을 73.58%까지 끌어올렸다. 2023년에는 펩시코로부터 경영권을 확보해 완전한 자회사로 편입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경영권 확보 과정에서 재상장 약정이 설정됐다는 점이다. 해당 약정은 2030년 말까지 유효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롯데칠성은 펩시코와 퀘이커글로벌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받아야 한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고려할 때 롯데칠성이 적절한 시점에 재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필리핀펩시의 수익성을 개선해 기업가치를 높인 뒤 높은 공모가를 확보하려는 전략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필리핀펩시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이 8.7%로 낮아진 점도 기업가치 상승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할인율이 낮아질수록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이는 FI가 보유한 풋옵션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또한 롯데칠성이 이미 7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 지분을 인수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재상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재상장 전 프리IPO를 통해 일부 지분을 유동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롯데칠성 측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재상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필리핀펩시의 실적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회수 가능 금액이 장부가액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할인율 하락은 필리핀 금리 하락의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상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풋옵션 행사에 따른 재무 부담도 거론된다. 지분 가치 추정에 따르면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수 있지만,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을 고려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인 항시 상주!
항상 사랑해 주시는
엄마가 직접만든
반찬류 판매

한국식품
육류/야채
반찬&김치류
냉동식품 일체

LG25
한국식품점
(배달/문의) 8637-8282
0917-370-1792





서울 식당
Seoul
Korean Restaurant
(배달/문의) 8637-8282 / 0917-370-1792



육 류 | 일반한식 | 안주류 | 건강식 | 면 류

[식사류]
콩나물해장국
갈비찜
오징어덮밥
불고기덮밥
제육덮밥
김치순두부
해물순두부
불고기순두부
돈까스
생선까스
강된장
육계장
자반고등어백반
닭한마리칼국수
잡채
물/비빔 냉면
오무라이스
해물오뎅탕
감자탕
청국장
순대국
동태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옻닭
삼계탕
갈비탕
굴미역국
성게알미역국
[분식류]
김밥
소고기김밥
참치김밥
라면
라면+주먹밥
해물짬뽕라면
해물칼국수
쫄면
해물떡볶이
라볶이
순대
냄비우동
후라이드치킨
양념치킨
반반치킨
도시락
[안주류]
보쌈or족발
닭갈비
부대찌개
미니해물탕
두부김치
해물파전
순대볶음
제육볶음
오징어볶음쫄면
굴무침
골뱅이쫄면
닭볶음탕
오삼불고기
불고기
삼겹살
불고기전골
돼지갈비묵은지
돼지등갈비묵은지찜
옥돔구이

음료 및 주류는 식품점 가격으로 배달

옻닭
인삼 삼계탕
한방족발
김밥&떡볶이



ASCENT
DEVELOPMENT CONSTRUCTION INC.

필리핀을 대표하는 한인 건설사로
고객감동과 가치창조를 실현합니다.

PCAB license General Contractor "AAA"

www.ascentphil.com

+63(2)8777-7218 / +63(2)7119-6756

Unit 1006, One Corporate Center, Julia Vargas Ave, Meralco Ave, Ortigas Center, Pasig

관계사
UBIVELOX (IT COMPANY)
HWAY TRANZ (LOGISTIC COMPANY)
AJ-SCENT (FIRE PROTECTION INSTALLATION)
KOMET (KOREA BRANCH OFFICE / CONSTRUCTION MATERIAL)

G&G 법률 회계 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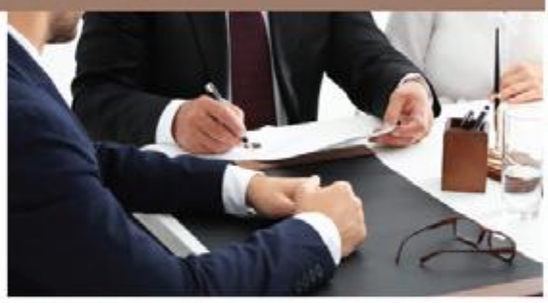


G&G 법률사무소 마닐라/클락 지사는 각 기관의 실행자와의 연계에 의한 실행적 해결 위주의 LEGAL 사무소입니다.

고민 X, 망설임 X, 미루지마세요

이제 우리 20만 한인 교민 여러분들도 필리핀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필리핀 생활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G&G 법률 회계 상담소에 **상담 문의 주세요!**



1. 변호사 선임 (Retainer)
사전 법적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과 자문(각 지방도 가능)

2. 법률적 사건, 사고
a) 민, 형사 사건(법원, 지방법원 등)
b) 노동청의 사건, 사고(노동 분규, 쟁의, 고발 등)
c) 각 수사기관의 연행 및 사건, 사고(NBI, PNP, 검찰 등)
d) 각종 채무, 채권



3. 법인 설립(SEC, DTI, 외국인 단독법인 등)
a) 세무, 회계, 법인관리 업무대행
b) LTO 관련업무 및 차량보험



4. 사업 정착을 위한 advice와 법률적 지원업무
a) 투자 또는 사업상의 법률 문제 및 법적 대리인 역할 등
b)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관공서 인허가 발급 등

5. 이민국 업무
a) 워킹(9G) 비자, 선교사 비자, 은퇴 비자 등
b) 다운그레이드, ECC, 관광비자연장 등
c) 모든 이민국 업무와 이민국 직원의 연행 및 사건, 사고
(Over stay, Black list, Denied, Hold Departure, Watch List)



시민권(국적 취득) / 영주권 특별 상담 / 번역 공증

마닐라 본사	문의: 02)7373-8051 / 0917-503-8899 이메일: gngtbc@yahoo.com WJ3007144 주소: #301 Corner, Commercial Bldg, 47 Aguirre Ave cor Tirona, BF Homes, Paranaque	클락 지사	문의: 02)7373-8051 / 0917-842-6996 이메일: gngtbc@yahoo.com GNGLAW 주소: # 201 Lot 13 & 14 block 16 Friendship Hiway Timog Park Subdivision Angeles



찰지고 구수한
우리입맛에 맞는 쌀



고춧가루

100% 태양초 로 만든,
엄격한품질관리(HACCP)를 통과한
청결하고 맛있는 고춧가루 입니다.

당면





미담채 쇠고기다시



주문전화 : 0917-852-5533 (도매전문)

뉴스게이트 교민 알림장

동호회, 모임 등 교민분들의 소식을 enewsgate@naver.com 으로 매주 화요일까지 접수 바랍니다.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 대사관 긴급전화 : 0917-817-5703
■ 대사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ph-ko/index.do
■ 대사관 휴무일
필리핀 대사관은 한국 공휴일 중 절로 끝나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만 필리핀에서 휴무하고. 필리핀 공휴일은 주재국 공휴일로 함께 휴무
■ 업무시간
- 월-금 오전 8:30~오후5시까지 업무
- 영사과 업무시간:
여권/공증: 오전 9시~12시, 오후 1:30~4:00)
비자 접수: 오전 8:30~11:00 / 비자 교부 오후 1:30~4시

■연락두절
연락이 두절 된 아래의 사람을 아시는 분은 주필리핀 대사관 해외안전팀(+63-2-8856-9210 내선 340~343) 또는 긴급전화(+63-917-817-57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 송문성(1988년생,남)
2. 신고 내용: 상기인은 2023년 6월경에 클락공항을 이용하여 필리핀 입국 후 국내 가족과 연락이 두절됨.
3. 신고자: 허○원(매형)



1. 성명: 박재기(1982년생,남)
2. 신고 내용: 상기인은 2023년 2월경에 마닐라 입국하였고 12월부터 국내 가족과 연락이 두절됨.
3. 신고자: 박○현 (동생)



1. 성명: 표현수(1977년생,남)
2. 신고 내용: 상기인은 2024년 6월 4일부터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2023년 10월경에 마닐라 입국함.
3. 신고자: 표○령(누나)



1. 성명: 이성헌(1974년생,남)
2. 신고 내용: 상기인은 2020년 3월경에 마닐라 입국하였고 2024년 5월 이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됨.
3. 신고자: 전○정(배우자)



1. 성명: 오영록(1968년생,남)
2. 신고 내용: 상기인은 2022년 10월경에 마닐라 입국하였고 2024년 2월 이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됨.
3. 신고자: 김○경(배우자)



1. 성명: 나훈(1992년생,남)
2. 신고 내용: 상기인은 2020년 1월경에 마닐라공항으로 입국하였고 2025년 7월 이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됨.
3. 신고자: 심○자(모)



1. 성명: 송찬양(1982년생,남)
2. 신고 내용: 상기인은 2024년 4월경에 마닐라 공항으로 입국하였고 2025년 6월 이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됨.
3. 신고자: 강○(배우자)



1. 성명: 이셰인벨렌시나(2017년생,여)
2. 신고 내용: 상기 아동은 2020년 1월경에 마닐라 입국하였고 2021년 이후 모친과 함께 연락이 두절됨.
3. 신고자: 권○분(조모)



1. 성명: 김희망(2018년생,남)
2. 신고 내용: 상기 아동은 2019년 5월경 마닐라 입국한 이후 모친과 함께 연락이 두절됨.
3. 신고자: 김○억(부)



1. 성명: 홍춘의(1986년생,남)
2. 신고 내용: 상기인은 2025년 2월경에 마닐라 공항으로 입국하였고 2025년 3월 이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됨.
3. 신고자: 홍○길(부)



1. 성명: 김용남(1982년생,남)
2. 신고 내용: 상기인은 2023년 3월경에 마닐라 공항으로 입국하였고 2025년 7월 이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됨.
3. 신고자: 김○희(누나)



1. 성명: 김상중(1980년생,남)
2. 신고 내용: 상기인은 2023년 8월경 클락 공항으로 입국 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됨.
3. 신고자: 강○심(모)



1. 성명: 김근열(1995년생,남)
2. 신고 내용: 상기인은 2020년 2월경 마닐라 공항으로 입국 2022년 3월 이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됨.
3. 신고자: 김○두(부)

▣ 필리핀 CTS기독교TV ▣

세계를 교구로 삼는 방송 CTS기독교TV가 필리핀에 다양한 소식을 'CTS뉴스 플러스'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7000 미라클 '예수사랑 여기에', '하나님에 사람들' 그리고 브라이언 박 목사의 '미라클 아워' 등을 통하여 필리핀의 여러 감동의 사연과 사역 등을 선정하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CTS기독교TV는 현재 필리핀 내에서 스카이케이블 141번 또는 IP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있으며 CT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취재문의 : 0917-709-7890 (필리핀 특파원)

▣ 동 포 사 랑 쉼 터 ▣

〈동포사랑쉼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제기관으로서, 필리핀에 계신 교민들 중에서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거처없이 부득불 불법체류하게 되어 귀국을 못하고 계신분들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및 귀국행 정절차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그동안 200여명의 불법체류교민의 귀국을 지원하여 왔으며, 혹시 귀국후 정착할 곳이 없는 분들은 〈재외한인구조단〉과 연계하여 정착후 취업을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귀필후 부득이 불법체류자가 되어 귀국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신 분들중 아래 조건에 합당한 분들은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간단한 면접심사후 입소하실 수 있으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입소조건) 1) 1년 이상의 장기불법체류자 2) 필리핀 내에서 범법행위가 없는 자(NBI Clearance를 통해 확인) 3) 귀국하여 새로운 삶을 살려는 의지가 확고한 자 4) 마약복용 및 전염병감염이 없는 자
(문의처) 이지훈원장(마닐라새생명교회) (0916 399 8000)